

# 한잔의 우유를 생각한다.

정 동수

“한 잔의 따뜻한 우유와 부드러운 빵이 있었으면...”

내가 어릴 때 읽은 서양의 작품속엔 그런 대목이 있었음을 어렴푸시 떠 올릴 때가 있다. 레미제라블? 소공녀? 알프스의 소녀? 어느 작품속의 귀절이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그것은 집을 떠나 멀리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심정을 나타낸 대목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주인으로부터 학대받는 불쌍한 하녀의 바램으로 표현된 것일지도 모른다.

따뜻한 우유와 부드러운 빵.

그것이 만약 우리의 문학작품이었다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었을까?

따뜻한 승능과 기름진 쌀밥이라고 하면 절 맛을 것인가. 그러나 우유와 빵을 승능과 쌀밥으로 대치하는 데는 분명히 무리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만은 아니다. 생활의 차이에서 오는 감각과 문화적 이질감일 것이다.

그런데 어릴 때 서양의 문학작품 속에서 읽을 수 있었던 따뜻한 우유를 그리워하는 장면의 느낌은 절박한 배고픔의 인상은 아니었다. 그것은 배를 곯아 누렇게 뜬 얼굴로 보리고개를 넘기는 우리동네 이웃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본적인 생명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느끼는 부족함, 그러니까 욕망의 다른 표현일 뿐일 것이지만 생각을 막연하게 갖게 됐던 것이다. 그래서 따뜻한 우유

를 그리워하는 사람이란 불우한 위치에 있음의 표현일 뿐 기근의 표현은 아니었잖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다. 그것은 물론 무슨 근거가 있다거나 그 작품이 씌어진 시대의 서양의 사정을 근거로 한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느낌이 그러했을 뿐이다. 내가 그렇게 느낄만한 근거는 물론 있다. 그들 문학작품속의 주인공들은 비록 따뜻한 한잔의 우유와 부드러운 빵을 마음놓고 먹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대부분 초롱초롱 빛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으며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을 망정 그들의 태도는 당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내 어릴 때의 이웃들은 어떡했던가 모처럼 먹을 것을 지냈을 때 나를 바라보던 또래들의 눈동자 충기를 잃고 멍하니 바라보며 목의 울대를 들먹거리던 그애들 나는 지금도 그때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나도 또한 그저 그랬었을 테니까.

시골에 어찌다 잔치가 벌어지고는 했다. 혹은 누구네 형이나 삼촌이 장가를 든다든지 혹은 누구네 할아버지의 회갑이라든지 할 때, 잔치가 벌어지면 잔치집 방만 가지고는 모자라서 이웃집 방까지 빌려 손님이 차게 되고 동네 청년들은 부지런히 상을 나르고는 했다. 어느 해엔가 우리집에도 할머니 회갑이 다가왔다. 할머니의 생신은 음력 오월 초 아흐렛날 한창 보리고개라고 일컬어지는 시기였다. 그런데 집안 식구들은 그전해 추수가 끝나면 서부터 할머니의 회갑 걱정을 하고 있었다.

아니 그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그땐 해전부터 걱정을 해왔을 것이다. 다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이 그 때부터였을 뿐이다.

〈봄, 잔치는 어려운 거여.〉

〈그렇다고 회갑나이도 안됐는데 가을에 할 수는 없잖아요〉

〈회갑잔치는 지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던데...〉

그런 걱정과 숙의 끝에 결국 규모를 줄여서라도 할머니가 태어나신 생일날에 회갑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 잔치엔 가까운 일가 친척과 마을 사람들만 부르기로 했다. 잔치날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과 먼데 일가 친척이 모여들었다. 나는 절로 신바람이 났다. 그런데 그날 잔치는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고 말았다.

잔치상을 받았던 손님들이 나가면 심부름을 하는 젊은 이들은 얼른 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 나가는 상을 향해 동네 조므라기들이 몰려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상으로 덤벼들어 남은 음식들을 모조리 손아귀에 움켜쥐는 것이었다. 염치고 체면이 없었다. 그렇게 몰려드는 아이들 때문에 상을 내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자연 멈출수가 없었다. 잔치상은 삼시간에 빈그릇만 남게 되었다. 애들이 하도 극성을 떨니까 한 번은 상을 운반하던 청년이 발길에 차이는 아이를 밟 모양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상을 들어 내오던 곳은 이웃집 행랑 마루였고 행장에 몰려든 아이는 밀리는 바람에 마루밑으로 자빠졌던 것이다. 그애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한바탕의 소란이 일고 다친애의 부모들은 집으로 쫓아와서 삿대질까지 해가며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그 결과 할머니의 생신은 〈떡하나 얻어 먹으려는 애를 발길로 차서 넘어지게 한 잔치〉가 되고 말았다.

내가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구태어 구겨진 그 때의 기억을 말하려는 까닭은

그 때의 시비를 다시 따져 보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가난과 저쪽의 우유와 빵을 그리워하는 마음과는 훨씬 거리가 있음을 새삼 느껴볼 뿐이다.

그런데 내가 정작 우유와 인연을 맞게 된 것은 그 후 세월이 훨씬 지나서였다. 형이 장가를 들었다. 곧 조카가 생겼다. 나는 우리 집에 어린애가 생긴 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그런데 어쩌던 일인지 형수는 젖이 나지 않았다. 어린애에겐 우유를 먹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때는 왜 그리도 우유를 구하기가 힘들었는지 모른다. 분유를 한강통 사려면 큰 약방에나 가야했다. 비락이라고 불리던 분유였다. 시골에는 그나마 없었다. 그러니 도회로 통학을 하는 내가 우유를 사나르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자연 〈우유통 든 학생〉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내 걱정은 그런 작은 창피함이 아니었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 그 당시 우리가 겪어야 했던 불운. 이를테면 5년이나 연속됐던 흉년과 할머니의 별세, 형수의 오랜 병상생활, 형의 입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우리집안의 이런 모든 고난을 어머니 혼자 담당해야했고, 내가 학업을 계속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 자연히 조카가 먹는 우유값을 대는 일도 여간 벅찬 것이 아니었다. 흉년이 든 농촌에서 현금을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등교길의 내게 꾀고추를 따서 들려주시거나 참깨를 한 되박 싸서 들려주시곤 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들고 학교보다 먼저 청과물 시장이나 곡물시장을 둘러 값을 흥정해야했고 현금으로 바꿔서 학교길엔 약국에서 분유를 사들고 와야했다. 그러자니 학교는 하루 걸러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정성도 헛일, 우유만을 먹고 자라던 조카는 모유를 먹어보지못해 저항력이 약했던지 아니면 분유를 잘못시켜 췌장이 심했던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자꾸 먹은 우유를 토하더니...”

그후 20수년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매일 매일 우유가 배달된다.

우유 먹을 사람?

학년초 급유 신청자를 파악하는데 손을 안 드는 몇몇 학생이 있었다. 대부분 우유를 마시는데.

〈우유나 한 잔〉 급한 시간에 혹은 밥맛이 없을 때의 대용식이 우유로 되어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우유의 우수성에 대해서 늘 강조하곤 한다. 그런데도 그학생은 손을 들지 않았다.

“넌 우유가 싫으니?”

그애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던 그애가 걸석을 했다. 곧 가정방문을 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런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연립주택의 지하에는 방이 셋이 있었다. 방

마다 하나씩 부엌이 달려 있고 방하나마다 한 세대씩 살고 있었다. 매케한 연탄냄새 습기찬 지하실 분위기 혼자 다리를 빨기도 힘든 좁은 방에 서너식구가 살고 있었다. 거기서 그애는 앓고 있었다. 독감일뿐이라고 했지만.

푸스스한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 올리며 담임을 맞는 그애를 보는 순간 나는 울음이 왈각 쏟아졌고 20년전의 기억을 자꾸 떠올렸다.

따뜻한 한 잔의 우유

우유를 신청하지 못한 그 학생.

아직도 그애겐 우유한잔이 행, 불행의 바로미터일 수 만은 없다. 생사와 연결되는 절대적 가난과 연결된 것이다.

한잔의 우유에 대한 생각이 왜 난 자꾸 우울해지는 것일까.

◇초·중·고교생의 평균 체위(84년말 현재)

학교	구 분		신 장 (cm)	체 중 (kg)	학교	구 분		신 장 (cm)	체 중 (kg)
	나 이	성 별				나 이	성 별		
국 민 학 교	6	남	117.9	21.6	중 학 교	12	남	149.5	40.7
		여	116.3	20.6			여	149.9	40.9
	7	남	123.1	23.9		13	남	156.1	45.2
		여	122.2	23.2			여	154.6	46.5
	8	남	127.8	26.7		14	남	162.4	50.4
		여	127.0	25.5			여	155.1	48.0
9	남	133.5	29.8	15	남	166.7	55.3		
	여	133.0	29.3		여	156.9	51.0		
10	남	138.1	32.8	16	남	168.9	58.6		
	여	138.4	32.5		여	157.4	51.6		
11	남	143.7	36.4	17	남	170.2	60.6		
	여	145.2	37.1		여	157.7	53.3		

88의 성공 4천만의 영광